

# 黑字轉換期の 酒類産業의 進路



李 相 鎬

〈産業研究院 輕工業室長・經博〉

## 目 次

- I. 序 論
- II. 轉換期에 처해 있는 우리 經濟
- III.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現況과 推移
- IV. 酒類工業의 長期展望과 發展課題

## I. 序 論

酒類工業은 기본적으로 內需産業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 經濟가 급격하게 꺾고 있는 커다란 變化, 즉 赤字經濟에서 黑字經濟로의 變遷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게 된다. 酒類工業의 경우 産業의 輸出入規模가 全體需給規模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海外部門의 經濟的 變動이 産業의 供給과 需要에 따라서 價格과 販賣量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酒類工業이 國際經濟變化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酒類工業도 엄연히 一國의 經濟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産業部門이며 따라서 二次的 또는 間接的으로는 海外部門의 變化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즉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는 우리 經濟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제전반의 새로운 움직임은, 먼저 需要側面에서는 國民所得水準에 영향을 미쳐 酒類消費의 規模와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 供給側面에서는, 酒類工業과 直間接的으로 前後方 聯關을 맺고 있는 産業의 變動이 酒類의 生産費 및 構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現代經濟에서는 外部狀況으로부터 완전히 獨立되어 있는 産業部門은 있을 수 없으며 酒類工業 또한 例外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현재 우리 經濟가 꺾고 있는 커다란 變化들이 언젠가는 酒類工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貿易收支의 黑字定着, 換率의 變動, 3低의 進行, 産業構造의 變化, 經濟 및 産業政策의 變化, 貿易과 資本去來의 自由化 등 80年代 後半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經濟環境의 變化와 向後의 動向에 대한 理解와 對應策 마련에, 經濟活動을 영

위하는 모든 經濟主體들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최근의 轉換期的 國內外 經濟環境의 變化를 II章에서 살펴본 다음 III章에서는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現況과 推移를 몇가지 指標를 가지고 分析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IV章에서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長期 展望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課題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 II. 轉換期에 처해 있는 우리 經濟

### 1. 國際經濟 環境의 變化

國際經濟 環境의 構造的 變化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먼저 國際 貿易秩序의 變化를 先進國 保護主義의 強化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向後 世界經濟與件 變化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變數가 될 油價, 國際金利, 換率 등 소위 3低 現象의 전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世界貿易秩序維持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 財政 및 國際收支의 赤字幅 擴大, 失業의 增大, 成長率의 鈍化 등으로 交易 相對國 특히 日本과 韓國, 台灣 등 新興工業國들에 대하여 갖가지 方法의 輸入規制를 強化하는 한편, 交易相對國들의 市場開放, 通貨의 平價切上 등을 강력히 要求하고 있다. 韓國과 台灣의 경우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國民總生産(GNP)中 輸出入 規模가 차지하는 比重; 韓國·台灣 공히 이 依存도가 70~80%에 달해 國際經濟 環境變化가 國內經濟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構造를 갖고 있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對美 輸出依存도가 특히 높아(韓國·台灣의 경우 總輸出의 40~60%를 美國地域으로 輸出하고 있으며, 전체 貿易黑字의 대부분이 美國과의 貿易去來에서 發生하고 있음.) 美國의 保護主義 壓力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保護主義 壓力 手段 가운데에서 市場開放의 경우, 그동안 國際經濟 環境變化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아왔던 食品工業, 酒類工業 등 內需爲主產業과 保險, 流通, 廣告 등 서비스 產業들에게도 中長期的으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理解와 對應策 마련은 그 重要性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保護主義 壓力은 美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先進國들도 自國 經濟의 成長率 鈍化, 貿易收支의 惡化, 失業의 增大 등으로 인해 主要 交易相對國들에 대한 保護主義 壓力을 強化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市場에 中低級 製品을 주로 輸出하고 있는 韓國과 台灣의 輸出에 대한 規制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어 輸出企業으로서의 부단한 技術開發을 통한 高品質의 高附加價值製品輸出에 盡力하지 않는 한 유럽 輸出市場에서의 지속적 基盤擴充은 매우 어려운 전망이다.

世界經濟秩序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油價, 金利, 換率 등 유명한 “3低現象”에 대한 動向과 展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데 우리 經濟처럼 對外依存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들 主要 經濟與件 變數들의 變化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 國民經濟의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活動을 영위하는 모든 主體(企業, 家計, 政府)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中東地域의 緊張高潮 등의 要因에 의해 油價, 美國의 프라임레이트(우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貸出金利), 달러화價值 등이 上昇勢를 보임에 따라 이른바 3低現象이 퇴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으나, 中東事態등 國際政治的 要因을 제외하고, 國際經濟的 環境만을 고려하게 되면, 최근 動向을 3低基調의 退潮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들 3低變數들이 그

동안 짧은 기간에 비교적 큰 폭으로 下落한 데 따른 調整過程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인 것 같다.

主要 現物油價가 中東事態의 進展에 따라 비교적 빠른 上昇勢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WTI 現物價格과 Brent油價 등 主要 現物油價가 배럴당 2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OPEC의 有餘生産設備가 1,000만배럴/日 이상되고 있으며, 主要石油 消費國들의 備蓄量이 거의 100日分을 초과하고 있어 상당기간 石油價格의 급격한 引上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의 中東事態가 더욱 擴大되어 현재의 이란·이라크 戰爭이 強大國들에게까지 飛火되게 되면 油價의 빠른 上昇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OPEC 内部不和 등으로 産油量이 急増할 경우 油價가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再暴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國際金利의 경우 이를 先導하는 美國金利가 上昇趨勢를 보여 프라임레이트의 경우 86年末 7.5% 水準에서 최근에는 8.25%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주로 油價 및 1次產品價格의 上昇으로 인한 美國의 인플레이 再然우려, 美國 聯邦準備銀行(FRB)의 金融緊縮 可能性 그리고 2,000억 달러에 달하는 美國 財政赤字 補填에 필요한 海外資金의 지속적 流入을 위한 여타 先進國과의 金利差 維持 必要性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金利의 上昇추세는 美國經濟의 景氣活性化, 鈍債務國으로 전락한 美國의 對外利子負擔 增大 등에 따라 그 상승추세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貨 價値의 경우 國際政治의 情勢不安, 美國 貿易收支 赤字幅의 縮小 등에 따라 최근 그 價値가 上昇하고 있으나 美國의 貿易收支 赤字가 근본적으로 改善되지 않고 있으며, 世界 最大 債務國으로 전락한 美國經濟에 대한 信認度 低下로 인해 國際通貨로서의 달러貨의

地位가 格下되고 있으며, 또한 日本·西獨 등 主要 先進國들이 經濟大國으로 浮上하면서 이들 通貨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不安要素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달러貨 價値는 80年代末까지 弱勢를 지속할 전망이다.

## 2. 國內經濟 動向

國內經濟는 작년에 이어 '87年度에도 輸出伸張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의 活況이 지속되고 있다. 生産·出荷·投資·輸出入·通貨·物價·雇傭 등 주요 巨視經濟指標를 中心으로 하여 지난 上半期中의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生産과 出荷의 경우 '87年 1~5月 期間中 前年同期에 비해 각각 19.8% 및 18.8% 씩 증가하여 높은 伸張勢를 지속하고 있는 데 이는 물론 輸出增加와 內需伸張에 따른 것이다. 業種別로는 電氣·電子(53.0%, 50.9%), 機械(33.6%, 29%), 運輸裝備(20.5%, 30.3%) 등이 큰 幅의 伸張勢를 보여 上半期 景氣活況을 主導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投資의 경우 工業用建築許可面積이 '87年 1~5月 期間中 前年同期 對比 94.2%의 높은 增加勢를 보였고, 製造業機械受注와 工業用機械類 輸入許可는 각각 32.6%와 86.7%의 增加勢를 보여 지속적인 設備投資의 好調를 나타내고 있다.

對外去來의 경우, 輸出이 上半期中 210억달러에 달해, 前年 同期의 156억달러보다 34.0% 증가하였고, 輸出信用狀(L/C)來到 또한 42% 增加하여 금년 下半期에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品目別로는 電子(58.1%), 機械(50.8%), 纖維(33.1%) 등이 계속 好調를 보이고 있으며, 地域別로는 日本(54.1%), 歐州(50.3%), 美國(31.8%), 사우디(19.4%) 등 우리의 主輸出市場에 대한 伸張勢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輸入은 上半期中 前年 同期 對比 21.4% 增加한 187억 달러에 달했다.

通貨量은 政府의 지속적인 安定化 意志에 의해 6月中 總通貨가 17.4% 增加에 머물러 지속적인 安定勢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物價 또한 都賣物價는 0.7%, 消費者 物價는 2.6% 水準에서 安定되어 있다. 景氣의 好調는 雇傭에도 영향을 미쳐 '87年 5月 까지 就業者數가 작년 5月보다 84만 3천명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失業率도 2.9% 改善되었다.

이러한 國內經濟의 움직임은 直間接적으로 酒類工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의 증가와 生産의 擴大는 勞動者들의 所得 增大를 결과하여 酒類에 대한 需要의 量과 質 兩面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通貨의 긴축적 운영은 다른 産業과 마찬가지로 酒類業界에도 資金事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國內經濟에 대한 動向把握은 業界의 短期는 물론 中長期 經營戰略 樹立에 매우 重要한 情報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Ⅲ.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現況과 推移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現住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統計에 의해 제시되는 측면 이의

에 이 特定産業의 歷史, 特徵, 業界構成 및 人士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酒類의 경우 다른 商品과는 아주 다른 商品的 存在價値를 갖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즉 酒類는 갈증의 해소, 料理의 材料와 같은 物理的 價値를 갖는 것은 물론 정신적 갈등의 해소, 환경의 어려움 극복, 인간관계의 조화 등 보이지 않는 心理的, 社會的 價値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酒類가 갖는 商品的 特性은 일단 제쳐두고 각종 統計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現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酒類業界의 規模別 現況

(表-1)은 1985年 12月末 현재 우리 나라 酒類業界의 規模別 現況을 보여 주고 있다. 총 약 천개의 從事業體 중 500人 이상의 大企業에 속하는 업체가 5개(전체의 0.5%)에 불과하며 300人~499人 규모의 3個社를 더해도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반면에 100人 이하의 小規模 業體가 915個로 전체의 96.7%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人 이하의 영세업체가 851個로 전체의 90.0%에 달하고 있어 酒類業界 중 사기업체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모별 분포와는 달리 生産額 構成을 보면 전체의 0.8%에 불과한 上位 8個

表-1. 規模別 現況

(1985. 12. 31 現在)

區分 \ 規模	5~9人	10~19人	20~49人	50~99人	100~199人	200~299人	300~499人	500人 以上	計
業體數(個)	724	127	43	21	17	6	3	5	946
從業員數(名)	4,301	1,623	1,383	1,602	2,214	1,503	1,190	3,219	17,035
生産額(百萬圓)	38,271	23,025	38,296	101,585	213,793	85,210	85,994	351,290	937,464
比重(%)	4.1	2.5	4.1	10.8	22.8	9.1	9.2	37.5	100.0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5(1987. 4)에서作成

註: 比重은 生産額 基準임.

社가 전체 生産額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의 90%에 달하는 20人 이하의 小企業의 生産額構成比는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零細企業들은 技術蓄積의 未洽, 研究開發能力의 不足, 販賣力의 不足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酒類工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는 각 分野別로 어느 정도의 生産, 販賣, 管理面에서 能力을 가질 수 있는 中堅企業의 育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酒類工業의 需給推移

(表-2)는 80年代 이후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需要(內需, 輸出)와 供給(生産, 輸入)의 推移를 보여 주고 있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酒類工業의 輸出入規模는 全體 需給規模에서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典型的인 內需産業임을 알 수 있다. 물론 酒種別로는 輸入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도 있지만(위스키의 경우 1985년에 輸入이 內需의 30.3%를 차지했음) 전반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80年代 들어 酒類의 生産은 年平均 9.1%씩 증가하여 生産規模가 '85년에 약 9,375 억원에 달하였다. 같은 期間中 酒種別 生産增加率을 物量基準으로 보면 燒酎의 경우 약 3.1%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生産增加를 보였으며 麥

酒는 6.4%, 위스키는 8.5%로 燒酎보다 높은 增加勢를 보여 酒類生産의 中心이 서서히 麥酒, 위스키 등 高級酒種으로 옮겨감을 알 수 있다. 한편 生産金額의 增加는 위의 物量增加에 價格變數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더 높은 增加勢를 보일 것이며 그럴 경우 위스키같은 高級酒種의 生産額 增加勢는 더욱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

## 3. 酒類工業의 製造業上 位置

(表-3), (表-4), (表-5)는 각각 生産額, 附加價値額, 業體數의 세가지 지표에서 酒類工業 및 食品工業이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生産額을 기준으로 할 때 食品工業과 酒類工業은 '85년에 각각 전체 製造業에서 12.2%, 1.2% 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0年 이후 그 比重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 이는 우리 나라 製造業은 機械, 電子, 自動車 등 소위 有望先導産業에 의해 發展이 主導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食品産業과 酒類工業의 製造業上 比重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들 産業의 絕對規模가 감소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經濟와 같이 급속히 成長하는 經濟에서는 비록 比重이 낮아지더라도

表-2. 酒類工業 需給動向

(單位: 百萬원)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生産	606,970	734,726	824,701	816,053	828,119	937,464	N. A.
輸入	4,104	2,301	1,836	2,278	3,687	3,517	4,455
計	611,074	737,027	826,837	818,331	831,806	940,981	N. A.
輸出	837	2,441	1,396	2,254	6,539	7,058	7,630
內需	610,237	734,586	825,141	816,077	825,267	933,923	N. A.
適用換率	607.43	681.03	731.08	775.75	805.98	870.02	881.50

資料: 經濟企劃院, 鐵工業統計調查報告書 및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表 - 3. 製造業上 位置 (生産額)

(單位: 10億圓, %)

年度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製造業	36,279 (100)	46,717 (100)	51,649 (100)	60,546 (100)	71,305 (100)	77,033 (100)
食品工業	4,979 (13.7)	6,165 (13.2)	7,220 (14.0)	8,163 (13.5)	8,913 (12.5)	9,421 (12.2)
酒類工業	607 (1.7)	735 (1.6)	825 (1.6)	816 (1.3)	828 (1.2)	937 (1.2)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5(1987. 4)에서 作成.

註: ( ) 안은 製造業 對比 比重임.

表 - 4. 製造業上 位置 (附加價值額)

(單位: 10億圓, %)

年度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製造業	11,857 (100)	15,413 (100)	17,306 (100)	20,911 (100)	24,654 (100)	26,737 (100)
食品工業	1,968 (16.6)	2,433 (15.8)	2,875 (16.6)	3,307 (15.8)	3,547 (14.4)	3,702 (13.8)
酒類工業	243 (2.0)	336 (2.2)	367 (2.1)	393 (1.9)	383 (1.6)	437 (1.6)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5(1987. 4)에서 作成

註: ( ) 안은 製造業 對比 比重임.

表 - 5. 製造業上 位置 (業體數)

(單位: 個, %)

年度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製造業	30,283 (100)	33,431 (100)	36,799 (100)	39,243 (100)	41,549 (100)	44,037 (100)
食品工業	4,617 (15.0)	4,621 (13.8)	4,445 (12.1)	4,465 (11.4)	4,554 (11.0)	4,659 (10.6)
酒類工業	1,239 (4.0)	1,099 (3.3)	1,040 (2.8)	982 (2.5)	970 (2.3)	946 (2.1)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5(1987. 4)에서 作成

註: ( ) 안은 製造業 對比 比重임.

絶對規模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附加價值 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生産額 기준 비중보다는 약간씩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食品工業과 酒類工業이 그래도 平均보다는 높은 附加價值創出 産業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高附加價值化의 추구는 우리 나라 食品産業 및 酒類工業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方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技術 및 管理能力의 培養을 위한 投資와 努力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事業體數 기준으로 보면 '85년에 전체 제조업에서 食品산업과 주류공업이 각각 10.6%와 2.1%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食品産業 전체로는 오히려 제조업 平均 業體規模(生産額 기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酒類工業은 제조업평균의 거의 절반규모에 해당하는 零細性を 보여 주고 있다. 業體의 零細性은 技術 및 販賣能力의 不足과 相互 構造的인 惡循環關係를 가져 高附加價值化를 이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中堅企業 育成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IV. 酒類工業의 長期展望과 發展課題

### 1. 需給展望

國民所得의 增大과 國民食生活 패턴의 變化 등으로 酒類의 消費는 계속 安定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內需市場의 規模가 1990년에는 약 1,300억원, 2,000년에는 약 2,400억원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內需增大의 대부분은 지금과 같이 國內生産增大에 의해 충당될 것이지만 '90년 이후 所得水準의 빠른 증가와 소비자기호의 변화,

經濟·社會의 급속한 國際化, 輸入自由化 등에 힘입어 酒類製品의 輸入이 高價·高級品을 중심으로 빠르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90년까지는 年平均 약 7.5% 정도의 완만한 輸入增加勢를 보일 것이나 차차 高級洋酒 및 포도주類에 대한 選好度가 높아지고 그들 제품에 대한 輸入自由化幅이 擴大되어 90年代에는 약 14%에 달하는 높은 平均 輸入增加率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絶對金額面에서는 輸入酒類가 여전히 작은 比重에 머무를 것이며 輸出의 경우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酒類工業의 需要展望

(單位: 10億원, %)

區 分	1985	展 望		年平均 增加率	
		1990	2000	1986-1990	1991-2000
生 産	937.5	1,296.6	2,366.1	6.7	6.2
輸 入	3.5	5.0	18.2	7.5	13.8
計	941.0	1,301.6	2,384.3	6.7	6.2
內 需	933.9	1,311.1	2,363.1	7.0	6.1
輸 出	7.1	10.5	21.2	8.1	7.3

資料: 筆者 推定

### 2. 發展課題

급격한 國內外 經濟環境의 變化는 國民所得, 物價, 生産, 投資, 換率, 雇傭, 輸出入 등 測定 가능하고 計量的인 經濟變數들에 영향을 미쳐 그에 따라 支出 및 消費需要 規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經濟環境의 變化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소비자기호, 생활방식, 수요패턴 등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經濟循環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우리 經濟가 겪고 있는 最近의 여러가지 상황들, 즉 國際收支黑字定着, 元貨切上, 무역마찰 등 국제적인 상황과 勞使紛糾, 賃金引

上, 産業構造高度化, 自由化 등 國內의인 상황이 한차례의 波動을 겪고 나면 새로운 成熟經濟社會로의 移行이 예상되고 있어 生産構造 및 消費패턴의 變化는 轉換期에 처해 있는 現在는 물론 中長期的으로도 많은 변모가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企業들은 향후 發展이 정체되거나 퇴보될 가능성이 크며 커다란 추세변화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企業들은 더욱 큰 社勢의 擴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轉換期的의 狀況下에서 우리나라 酒類工業이 더 한층의 成熟과 發展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課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全世界의으로 확산되고 있는 個性化, 專門化, 소프트化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文化와 意識構造의 變化는 消費패턴에 구조적인 變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不持定多數를 상대로 少品種의 商品을 만들어 大量으로 팔던 方式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酒類工業의 경우 지금까지 國民所得水準, 酒類市場規模, 소비자계층의 다양한 구성 등에 비해 볼 때 너무나 획일적인 少品種 大量販賣方式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變遷의 요구가 커질 것이며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需要開發을 위해서는 이러한 劃一的方式에서 탈피하여 多品種少量方式의 先進國型 需要開發 努力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酒類輸入自由化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經濟 전반이 國際化, 自由化되고 올림픽 등 국제적인 行事의 多發로 인한 국제교류의 대폭적 확대는 酒類의 輸入擴大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先進酒類企業들의 다양한 品目과 브랜드 이미지, 높은 技術力, 막강한 販賣能力을 감안할 때 酒類輸入規模가 의외로 급속히 신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 酒類工業도 더 이상 보호된 國內市場에 安住할 여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 다양한 需要에 대한 充足,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國民經濟의 主要한 한 部分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셋째, 海外市場開拓에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海外進出한 우리 僑胞들

을 대상으로 販賣活動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점차 海外市場進出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시장진출 노력은 海外販賣의 擴大 측면 뿐만 아니라 先進 酒類工業國들의 技術情報, 生産 및 販賣戰略 등 經營能率 向上을 위한 노우하우의 습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네째, 政府의 産業政策方向에 대한 理解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先進産業社會 건설을 위해 政府에서는 高附加價値를 창출하고 産業間 聯關波及效果가 크며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産業部門에 대한 支援을 강화하고 있어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産業支援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酒類工業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經濟的 資源의 利用可能性에 대해 中長期의인 眼目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技術革新, 新市場開拓, 經營能率向上 등 生産과 販賣에 관련된 제반 經濟活動의 效率性을 제고시켜야만 轉換期的인 局面에서 活路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酒類工業의 發展을 위한 몇가지 課題들을 언급하였으나 모든 다른 工業部門에서와 마찬가지로 酒類工業에서도 生産職, 管理職 할 것 없이 人材養成에 정성을 쏟아야만 급변하는 經濟社會 環境變化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企業의 成長이 가능할 것이다. 技術情報, 市場情報, 소비자기호변화에 대한 情報 등 각종 有用한 情報를 신속·정확히 人手하여 分析하고 代案을 제시할 수 있는 體制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企業은 業種 不問하고 轉換期的인 충격을 이겨나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이 방심하면 우리모두 불행초래**